

박바울 목사님께

주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저는 주안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며 선교활동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가족과 또 만나는 모든 농아인들이 모두 몸건강히 평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계속해서 콜롬비아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6시~9시까지 성경공부를 정기적으로 계속 가르쳤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에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성경공부 및 예배를 드렸습니다. 농아성도들은 모임에 열심이고 성경공부에 대한 열정도 뜨겁고 성경말씀을 전하는 지식도 많이 늘었습니다.

7월 12일(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특별세미나로 성경적 결혼생활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많은 농아인부부, 싱글들이 모여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 20일(일요일)에는 농아인들을 데리고 호퍼시에 가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호퍼시에 거주하는 농아인집에서 주변 농아인들을 초청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였습니다. 몇몇농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7월 26일-27일 이틀동안 농아인들을 데리고 부카라마가시에 가서 전도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지역 농아인들이 많이 모여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8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는파나마에서선교활동을하였습니다. 파나마 현지 농아인교회에서 설교하고 농아인들을 모아 성경공부를 계속 진행하며 중간중간 시내 Mall에서 소그

룹 농아인모임을 통해 성경공부도 함께 하였습니다.

파나마에 있는 농아인들도 대부분 성경지식이 없고, 복음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파나마에 체류하는 동안 많은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성경공부를 통해 농아인들이 많이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하였고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월부터~12월까지는 콜롬비아 체류기간 초과로 체류할 수가 없어 콜롬비아에서는 그동안 성경공부로 신앙훈련을 받았던 농아인신학생들과 농아인지도자들에게 주일마다 말씀 설교를 맡아 매주 모여 주일예배와 성경공부를 리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전달하여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Zoom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포트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말에 볼리비아농아교회와 일정을 조율하여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제목

1. 농아인들에게 복음이 충분히 전해질 수 있도록
2. 콜롬비아 내전이 속히 끝나고 안정되도록
3. 파나마에 농아 교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4. 저의 건강을 위하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메데린 선교 활동



결혼 세미나



호퍼 농아 선교



부카라마가 농아 선교



파나마 농아 선교



다비드 농아 선교



메데린 농아 성도 설교

